

#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이 병 훈\* · 박 정 환\*\*

< 목 차 >

I. 서 론	V. 결 론
II. 선행연구 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Abstract>
IV. 연구결과 및 해석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사회 변화와 청소년기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하여 현재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미래의주체인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또한 대통령도 학교 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폭력이 비단 학교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진교진, 1999).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다. 스텐리 홀(S. Hall)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질풍과 노동'의 시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의 정서는 우발적이고 과격하게 나타나 자신도 모르게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드(Id)'가 강하게 작용하여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석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인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학생 집단 폭력 예방지도, 1996).

실례로 얼마 전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동영상이 인터넷이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더구나 그 동영상이 수업 시간에 촬영된 것이기에 충격은 더하였고 급기야 교장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장난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일 년 동안의 폭행으로 인해 온 몸의 멍 자국과 귀, 손, 팔 등 눈에 쉽게 띄는 신체 부위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그저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 사건을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였다(이명자, 2004).

물론 학교 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이지매'는 집단 따돌림 유형의 대명사화 하였고,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학교폭력이 최대에 달했는데, 1989년 미국 NCVS(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의 조사에 의하면 12~19세의 학생들 중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Gang이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이 2002년 3월 27일부터 4월 11까지 전국의 중, 고교생 8,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11.5%가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생 피해자가 15.6%, 고교생이 9.3%로 나타났고 또한 남학생은 13.7%, 여학생은 8.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생의 35.8%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학생들도 10.3%에 달했다(안영숙 2004년).

과거의 학교 폭력은 학생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청소년기의 치기에서 비롯한 것이 많았다. 청소년기의 돌출 의식에서 비롯한 '순진한 폭력'이었다. 그러한 폭력은 그 동안 교내 문제로 학사적 차원에서 수습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의 한 측면인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및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대상을 골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소위 일본의 '이지매성 폭력'이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놀림뿐만 아니라 시험 때 답안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고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약한 상대를 골라 폭력을 휘두르며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고통에 울면서도 가만히 참고 있는가 하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한편,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으로 정신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자살에 이른 사건도 발생하였다(이경자, 1998).

학교 폭력은 학생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근본 문제는 폭력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건 간에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평생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청소년을 병들게 하며, 그로 인해 미래의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원인들을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대책수립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효과 있는 학교폭력대응책 모색의 기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폭력에 관련된 원인들을 분석하여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의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 셋째,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방법은 어떠한가?
- 넷째, 학교 폭력의 증가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상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력을 뜻 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과 권력의 부당한 사용 역시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폭력에는 단순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 폭력이란 폭력이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교내폭력, 학교 주변폭력, 학원폭력, 학생폭력, 청소년폭력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다용되기도 한다. 홍금자

(2004)와 이경준(2004)은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발생장소가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이 의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의 범위를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명자, 2004).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장명신(1998)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 학생의 13.6%인 76명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험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학생의 11.3%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가 35.8%를 차지했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53.7%가 응답했다.

유홍렬(1999)은 인천, 부천지역의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6%의 학생이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이 13.5%로 중학생 11.7%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주로 나타났고 왕따의 문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영(2000)은 '하영읍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교 폭력을 경험한 167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의 원인인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변인(주위 환경에 대한 반응 정도, 신체적 차이, 자신감 정도, 교우관계 정도)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물질적 피해를 제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주위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다른 학생과 차이를 나타내며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으며 교우관계 면에 있어서도 다른 학생과 차이를 나타내며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으며 교우관계 면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2000)는 전주시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인 폭행, 금품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의 피해 정도가 성별, 학년별, 형제관계 별, 어머니의 직장유무별, 보호자의 학력별, 생활정도별로 의한 피해는 폭행(11.9%), 금품갈취(9.4%), 괴롭힘(14%), 집단 따돌림(7.3%)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 피해를 제외라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가 많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중 금품갈취 피해는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안'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았고 보호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흥장'에서 피해가 많은 것을 나타냈다.

박다애(2001)의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폭력가해학생과 일반 학생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학생과 일반 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개인적'요인에서는 공격성과 왜곡된 가치관,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가정의 안정성 부모의 폭력, 경제적 어려움이 학교환경 요인에서는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학교 폭력 피해경험,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에 대한 자부심, 성적이, 사회 환경 요인에서는 집 주위 환경, 학교주변 환경, 폭력매체 접촉도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공격성이며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 가정의 안정성이며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학교폭력 피해경험 서적으로 나타났다.

김순석(2001)은 서울시 6개 중학교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품갈취 피해가 1번 이상 있는 경우가 전체의 32%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은 13% 괴롭힘은 결손가정이 정상가정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를 당한 사실은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수시 설문조사보다는 경찰이 신고전화 설치와 학교폭력 예방도에 대하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경찰의 신고전화 설치와 학교폭력 예방도에 대하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결손 가정보다는 정상가정이 신고전화 설치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남·녀 중·고등학교(고등학교 : 일반계 3, 실업계 3, 중학교 4) 10개교를 선정하여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의 유무, 그리고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조사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남	여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470명	375명	319명	305명	221명	423명	422명

## 2. 연구도구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진교진(1999), 안영숙(2004)의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 배경 변인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교별, 지역별에 따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학교폭력의 경험

<표 2> 신체적 폭력 경험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 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없 다	N	409	368	294	280	207	385	390	777
	%	87.0	98.1	91.0	91.8	93.7	91.7	92.4	92.0
일 년 에 한 두 번	N	26	4	17	10	3	16	14	30
	%	5.5	1.1	5.3	3.3	1.4	3.8	3.3	3.6
일 년 에 두 세 번	N	8	1	4	4	1	5	4	9
	%	1.7	0.3	1.2	1.3	0.5	1.2	0.9	1.1
한 달 에 한 번	N	11	1	2	5	5	7	4	12
	%	2.3	0.3	0.6	1.6	2.3	1.7	0.9	1.4
한 달 에 두 번 이상	N	16	1	6	6	5	7	10	17
	%	3.4	0.3	1.9	2.0	2.3	1.7	2.4	2.0
전 체	N	470	375	323	305	221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5.073(4) .000		9.691(8) .287			1.620(4) .805		

학교의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했었다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약 8.0%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92.0%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98.1%) 보다는 남학생(87.0%)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 년에 한두 번 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5.5%) 여학생(1.1%)보다 많았다. 또한 일 년에 두세 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1.7% 여학생 0.3%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번이라고 답한 학생은 남학생 2.3% 여학생 0.3%라고 했으며 한 달에 두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3.4% 여학생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표 3> 흥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없 다	N	449	373	315	297	214	407	412	822
	%	95.5	99.5	97.5	97.4	96.8	96.7	97.9	97.3
일 년 에 한 두 번	N	5	2	2	2	3	4	3	7
	%	1.1	0.5	0.6	0.7	1.4	1.0	0.7	0.8
일 년 에 두 세 번	N	1				1	1		1
	%	0.2				0.5	0.2		0.1
한 달 에 한 번	N	6		2	3	1	5	1	6
	%	1.3		0.6	1.0	0.5	1.2	0.2	0.7
한 달 에 두 번 이상	N	9		4	3	2	4	5	9
	%	1.9		1.2	1.0	0.9	1.0	1.2	1.1
전 체	N	470	375	323	305	221	421	421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3.807(4) .008		4.612(8) .798			3.951(4) .413		

다른 학생으로부터 흥기로 위협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97.3% 일 년에 한두 번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0.8%로 나타났다.

흥기로 위협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 중 여학생이 99.5%로 남학생 95.5%보다 많았다. 일 년에 한 두 번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남학생 0.2% 여학생 0.0%로 나타났으며, 일 년에 두세 번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0.2% 여학생은 0.0%이고, 한 달에 한번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1.3% 여학생은 0.0%로 나타났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대답한

남학생은 1.9% 여학생은 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학교별, 지역별 성적놀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없 다	N	414	359	288	282	207	382	389	773
	%	88.1	95.7	89.2	92.8	93.2	91.0	92.2	91.5
일 년 에 한 두 번	N	23	11	15	10	9	19	14	34
	%	4.9	2.9	4.6	3.3	4.1	4.5	3.3	4.0
일 년 에 두 세 번	N	5	2	4	2	1	4	3	7
	%	1.1	0.5	1.2	0.7	0.5	1.0	0.7	0.8
한 달 에 한 번	N	8	1	6	3		6	3	9
	%	1.7	0.3	1.9	1.0		1.4	0.7	1.1
한 달 에 두 번 이상	N	20	2	10	7	5	9	13	22
	%	4.3	0.5	3.1	2.3	2.3	2.1	3.1	2.6
전 체	N	470	375	323	304	222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9.168(4) .001		7.009(8) .536			2.687(4) .612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적놀림의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91.5%가 응답하였다.

성적놀림의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88.1% 여학생은 95.7%로 남학생이 성적놀림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년에 한두 번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4.9% 여학생은 2.9%이고, 일 년에 두세 번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1.1% 여학생은 0.5%라고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1.7% 여학생은 0.3%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두 번 이상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4.3% 여학생은 0.5%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학교별, 지역별 성적놀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5>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없 다	N	411	364	284	291	204	386	387	775
	%	87.3	97.3	88.2	95.4	91.9	91.9	91.7	91.7
한 달 에 한 두 번	N	31	9	22	6	12	19	20	40
	%	6.6	2.4	6.8	2.0	5.4	4.5	4.7	4.7
한 달 에 두 세 번	N	8		4	3	1	6	2	8
	%	1.7		1.2	1.0	0.5	1.4	0.5	0.9
일 년 에 한 번	N	8	1	5	2	2	5	4	9
	%	1.7	0.3	1.6	0.7	0.9	1.2	0.9	1.1
일 년 에 두 번 이상	N	13		7	3	3	4	9	13
	%	2.8		2.2	1.0	1.4	1.0	2.1	1.5
전 체	N	471	374	322	305	222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0.664(4) .000		12.721(8) .122			4.056(4) .398		

다른 학생에게 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87.3% 여학생은 97.3% 한 달에 한두 번인 남학생은 6.6% 여학생 2.4% 한 달에 두세 번인 남학생은 1.7% 일 년에 한번인 남학생 1.7% 여학생 0.3%, 일 년에 두 번 이상인 남학생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에 대한 학교별,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6> 폭력을 행사한 대상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같은반 또는 다른반 학생	N	71	16	31	35	21	42	44	87
	%	34.0	24.2	27.9	51.5	21.6	28.2	35.5	31.6
같은학교, 동네, 다른학교 선배	N	18	14	11	12	9	16	16	32
	%	8.6	21.2	9.9	17.6	9.3	10.7	12.9	11.6
동네 또래 친구	N	120	36	69	21	67	91	64	156
	%	57.4	54.5	62.2	30.9	69.1	61.1	51.6	56.7
전 체	N	209	66	111	68	97	149	124	27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8.417(2) .015		26.067(4) .000			2.481(2) .289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지 묻는 응답에 남학생 34.0%, 여학생 24.2%가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이라고 응답하였고 같은 학교나 동네, 다른 학교 선배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8.6% 여학생은 21.2%, 동네 또래 친구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57.4% 여학생은 54.5%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이라고 답한 중학생은 27.9% 인문계고등학생은 51.5% 실업계고등학생은 21.6%, 같은 학교나 동네 다른 학교 선배라고 답한 중학생은 9.9% 인문계고등학생은 17.6% 실업계고등학생은 9.3%, 동네 또래 친구라고 답한 중학생은 62.2% 인문계고등학생은 30.9% 실업계고등학생은 69.1%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폭력을 행사한 대상에 대한 것을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2.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표 7>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할 때 취한 행동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가만히 있었다	N	51	20	30	19	23	33	38	71
	%	33.3	40.8	36.6	33.9	35.4	31.4	40.0	35.1
도망쳤다	N	22	5	11	7	9	16	10	27
	%	14.4	10.2	13.4	12.5	13.8	15.2	10.5	13.4
말로써 항의했다	N	32	6	17	13	8	21	17	38
	%	20.9	12.2	20.7	23.2	12.3	20.0	17.9	18.8
대항해서 싸웠다	N	32	13	11	14	20	22	22	45
	%	20.9	26.5	13.4	25.0	30.8	21.0	23.2	22.3
기 타	N	16	5	13	3	5	13	8	21
	%	10.5	10.2	15.9	5.4	7.7	12.4	8.4	10.4
전 체	N	153	49	82	56	65	105	95	2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086(4) .544		11.719(8) .164			2.855(4) .582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할 때 취한 행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만히 있었다”가 35.1%로 가장 많았고 “대항해서 싸웠다”(22.3%), “말로써 항의했다”(18.3%), “도망쳤다”(13.4%) 순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는 물음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찾을 수가 없다.

<표 8>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사람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부모나 가족형제	N	18	9	18	3	6	17	9	27
	%	12.3	19.1	23.7	5.6	9.4	17.0	9.9	14.0
친 구	N	33	15	11	21	16	21	26	48
	%	22.6	31.9	14.5	38.9	25.0	21.0	28.6	24.9
선 생 님	N	12	4	3	6	7	4	12	16
	%	8.2	8.5	3.9	11.1	10.9	4.0	13.2	8.3
전문 상담 기관	N		1	1				1	1
	%		2.1	1.3				1.1	0.5
경 찰	N	8	1	2	2	5	6	3	9
	%	5.5	2.1	2.6	3.7	7.8	6.0	3.3	4.7
아 무 에 게 도 이야기하지 않음	N	59	14	33	17	24	39	34	73
	%	40.4	29.8	43.4	31.5	37.5	39.0	37.4	37.8
기 타	N	16	3	8	5	6	13	6	19
	%	11.0	6.4	10.5	9.3	9.4	13.0	6.6	9.8
전 체	N	146	47	76	54	64	100	91	19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8.206(6) .223		24.245(12) .019			11.516(6) .074		

학교별로 볼 때 부모나 가족 형제에게 말했다는 중학생은 23.7% 인문계고등학생은 5.6% 실업계고등학생은 9.4%고 친구라고 답한 중학생은 14.5% 인문계고등학생은 38.9% 실업계는 25.0%, 선생님이라는 중학생은 3.9% 인문계는 11.1% 실업계는 10.9%고 전문 상담 기관이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3%이다. 경찰이라고 답한 중학생은 2.6% 인문계 3.7% 실업계 7.8%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중학생은 40.4% 인문계고등학생 31.5% 실업계 고등학생은 37.5%가 되었고 기타 의견은 중학생 10.5% 인문계 9.3% 실업계 9.4%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 대한 성별, 지역별로는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

### 3.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표 9> 제주도 학교폭력 문제의 정도

구 분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시	읍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	N	33	15	22	11	15	20	28	48
	%	7.1	4.0	6.9	3.6	6.9	4.8	6.8	5.7
심각하지 않다	N	79	75	65	50	40	81	73	154
	%	17.1	20.1	20.4	16.4	18.3	19.3	17.7	18.4
보통이다	N	237	206	163	171	111	225	217	443
	%	51.3	55.1	51.3	56.3	50.9	53.6	52.5	53.0
심각하다	N	70	62	47	59	27	68	63	132
	%	15.2	16.6	14.8	19.4	12.4	16.2	15.3	15.8
매우 심각하다	N	43	16	21	13	25	26	32	59
	%	9.3	4.3	6.6	4.3	11.5	6.2	7.7	7.1
전체	N	462	374	318	304	218	420	413	8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2.742(4) .013		19.764(8) .011			2.647(4) .619		

현재 제주도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남학생은 7.1% 여학생 4.0%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7.1% 여학생 20.1%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51.3% 여학생은 55.1%, 심각하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5.2% 여학생은 16.6%,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9.3% 여학생은 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오차범위 1%이내에서 유효하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을 한 중학생은 6.9% 인문계 고등학교 3.6%, 실업계 고등학교는 6.9%,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을 한 중학생은 20.4% 인문계고등학교는 16.4%, 실업계고등학교는 18.3%, 보통이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51.3% 인문계고등학교는 56.3% 실업계고등학교는 50.9%, 심각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4.8% 인문계고등학교는 19.4% 실업계고등학교는 12.4%,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6.6% 인문계고등학교는 4.3% 실업계고등학교는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제주도 학교폭력 문제의 정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내의 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학교폭력 대응책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지도 교육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및 북제주군 지역 2학년 남, 여 학생 845명(남 470명, 여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 간에 싸움을 하거나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폭력은 그 동안 교내 문제로 학사적 차원에서 수습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 중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 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학교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살에 이른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이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예방과 대비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구하게 되었으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주어진 설문에 대해 대부분이 학생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생들 중 폭행을 경험한 경우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시 지역 보다는 읍면지역 학생이, 일반계 학생 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많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첫째,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을 한 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다.
- 둘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선 아직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 셋째, 학생들은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법 시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경찰,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신고센터 마련 등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어른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의 시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지름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학교 폭력에 관한 한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헐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청정지역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 사회, 교사, 학부모, 학생이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본용(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자료집 96-1.
- 김갑제(1995). “학교내의 폭력 근절 방안”, 학교내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 김동인(1996). “교육환경과 학교 폭력”,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김경안(1996).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철(1995). “학교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학교내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김순석(2001).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일(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선숙(1997). “학교폭력실태 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단 올베우스(1996, 이동진 옮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서울 : 삼신각
- 문정선(1997).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민(2000).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00). “실업계 공동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록(2003).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렬(2003).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형만(2001). “경찰력 행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영원(1997). “학원 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광금주(1991). “대중 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진(1991). ‘2020년 . 청소년의 병리 -폭력-.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자료.
- 이경자(1998).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주(2002). “학교폭력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1996).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자료집 96-1.
- 이종복(1997).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 장재식(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경(1998).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교진(1999). “학교 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제 11회 특수 상담 사례연구 자료집.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 한울림.
- 치안연구소(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최윤진, 구창모, 정문성(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최종옥(1991). ‘학생폭력의 원인’, 학생폭력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서울특별시 교육 연구원.
- 홍재선(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3). Aggression-A social Learnin Analysis. EnglewoodCliffs, N. J. : Prentice-Hall
-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 Role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 165~176.
- Gelles. R. J. and M. A. Straus(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n. R. Hill. F. I. Nye and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 Y. : Free Press.

<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Violence in Schools

Lee Byung-hoon, Park Jung-hw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violence in school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solve the proble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us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made a questionnaire based on prior researches. For the study, the researcher selected 10 high schools and randomly selected 900 students at the school.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he students and 84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in the study,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for Window program.

Findings suggest that male students have experienced much more physical violence than female students inside and outside schools.

Second, students think tha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Jeju is not severe.

Third, students want to prevent violence in schools through legal or institutional restrictions, and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dealt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not from the thought and judgement of adults.

Finally,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n Jeju is not serious, but schools, community,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should do their best and cooperate to sustain the image of the violence-free city.